

보건복지 ISSUE & FOCU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집호 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신정우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흔들고 있는바, 보건의료제도의 회복력(resilience)이 다시금 강조됨.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병·의원, 약국 등)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의료계는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음.
-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됨.

01. 서론

- ◆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5년, 우리나라는 그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공격을 받았으나,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음.
 - 짧은 기간 동안 감염자 수가 급속히 늘어 가던 중 4차 감염까지 속출하였으며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였음.
 - 2015년 하반기에 사태가 진정된 후 3년 만에 다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빠른 대응으로 38일 만에 상황이 종료되었음.

- ◆ 우리나라의 메르스 대응 사례는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발생과 함께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됨.
 - 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있었던 제31차 프로그램 행정예산위원회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에 대한 WHO 사무총장의 첫 공식 보고가 있었음.
 - 위원회 당시 WHO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와 보건위기 대응 능력에 찬사를 보내며, 메르스 대응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최근 해외 언론에 따르면,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역시 많은 국가에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보임.²⁾

-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 국민의 협조, 의료계의 노력,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헌³⁾ 등 여러 사회 주체의 노력이 있어,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대하게 함.
 - 특히 의료계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추가하는 등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⁴⁾
 - 이와 함께 감염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 가고 있음.⁵⁾

-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손실이 정부, 국민, 기업 등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있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비록 사회의 전 영역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밀접하게 대응하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2020년 1월 29일~31일(WHO, 스위스 제네바).

2) Max Fisher and Choe Sang-Hun. (2020. 3. 23.).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23/world/asia/coronavirus-south-korea-flatten-curve.html>에서 2020. 3. 25. 인출.

3) 허동준. (2020. 3. 2.). 삼성, 300실 규모 영덕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동아닷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2/99970395/1>에서 2020. 3. 25. 인출.
이수빈. (2020. 3. 5.). 한화도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용인연수원 제공...200실 규모.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058519>에서 2020. 3. 25. 인출.

4) 이승덕. (2020. 2. 19.). 의료계-중앙본부, 코로나 19 지역확산 방지 논의. 약업신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0822>에서 2020. 3. 31. 인출.
박선재. (2020. 3. 17.). 의료진과 병원 내 감염을 막으려는 병원들의 눈물겨운 노력.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3>에서 2020. 3. 31. 인출.
전효진. (2020. 3. 24.). 서울대병원, 로봇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나선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4/202003240202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에서 2020. 3. 31. 인출.

5) 윤영채. (2020. 3. 31.). 방호복 입고 몇 시간씩 근무하면 땀이 비오듯...의료진 헌신적 노력으로 완치자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2714549492>에서 2020. 3. 31. 인출.

02.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

- ◆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의료계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손실도 겪고 있음.
- ◆ 하지만 아직 두 가지 측면 모두 손실의 규모를 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바,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의료계의 손실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 우선, 금전적인 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하여 환자 수가 줄어들어 따라 발생함.
 -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 음압 병상, 에크모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⁶⁾를 투입함.
 -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후 폐쇄하거나 휴업을 하게 됨.
 - 또는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시설(식당, 영화관 등)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 휴업에 관한 행정명령을 받기도 함.
- ◆ 비금전적 손실로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은 매일 환자(또는 감염병에 걸릴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를 직접 대하면서 감염 위험의 부담을 안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짐.
 -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의료기관 내 여러 직종(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간 대화가 줄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뒤따름.
 -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대응으로 인해 일반 환자의 치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거나 의료진의 검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역사회에 도는 거짓 정보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도 있음.
- ◆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함.
 - 가장 대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폐쇄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동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추가적인 부담(교통비, 각종 진단 검사 비용)을 떠안게 되는 일을 들 수 있음.
 - 이뿐만 아니라 환자는 적합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건강 상태가 악화됨.

6) 에크모(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속에 투입하는 의료장비로, 환자의 심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사용함.

- 또한 의과대, 간호대, 약대 졸업생의 실습 기회가 축소⁷⁾되어 미래 의료 인력이 현장 대응력을 함양(실무 의료 경험)하지 못하게 됨.

03.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

- ◆ 금전적이었는지 비금전적이었는지 혹은 예측 가능하였는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함.
- ◆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것⁸⁾은 의료계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첫걸음을 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 한편, 비금전적인 손실은 의료인의 건강 위험, 의료기관의 이미지 실추, 국민의 신뢰 저하 등으로, 아직 계량화할 만한 자료가 없어 바로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움.
- ◆ 따라서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려는 노력도 해야 함.
 - 예를 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할 수 있음.
 -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자부심 내지 확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임.
- ◆ 더불어,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 간 '합의'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함.

7) 김민건. (2020. 2. 21.). 대구·경북지역 약대 실습 중단...감염우려에 학교 복귀.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2050&REFERER=NP>에서 2020. 3. 31. 인출.

박숙현. (2020. 2. 28.).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에 한의대 병원실습 연기.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66>에서 2020. 3. 31. 인출.

허지은. (2020. 3. 16.). 간호학과 현장실습 빨간불인데 '간평원' 목록부담...교육현장 혼란 가중.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192>에서 2020. 3. 31. 인출.

조운. (2020. 3. 28.). 코로나19 의대 실습교육도 미지수..의대생 반응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477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에서 2020. 3. 31. 인출.

8) 보건복지부. (2020. 3. 17.).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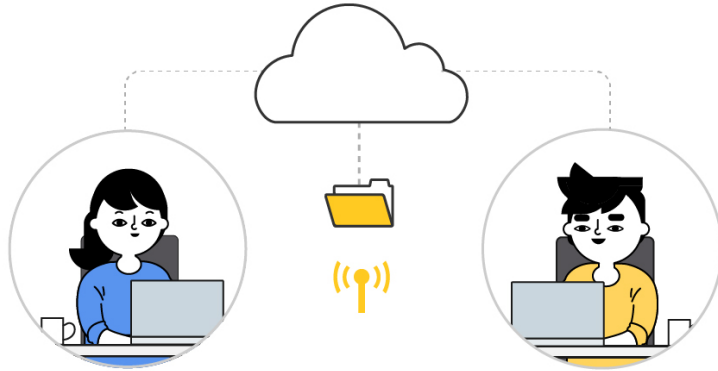
04. 나가며

- ◆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세계적 유행)⁹⁾으로 선언한 코로나19는 유럽 지역, 중동 지역, 미국 등 세계 각국을 앞서 우리나라를 습격하였음.
- ◆ 많은 국가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려를 표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기도 하며, 전 세계가 추구하는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이기도 함.
- ◆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임.
- ◆ 최근 정부는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과 항목을 검토하기 시작한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함.
- ◆ 정부는 현행법에 기초하여 보상 방안을 강구하되, 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의료계 내외부적 배분의 공정성,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정부가 사실을 공개한 경우만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데, 언론 등 그 밖에 경로로 의뢰기관 정보가 노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함.
 -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코로나19 대응 주체 간에, 외부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과의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함. 이때 업무의 강도, 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적 요소를 반영하여 상호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 한편, 의료계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공유해야 함.
- ◆ 우리 사회 각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고 다양한 손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서로 탓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손실을 이해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지혜를 나누었으면 함.

9) WHO는 설립(1948년) 이후, 아시아 독감(1957년), 홍콩 독감(1968년), 신종플루(2009년), 코로나19(2020년)를 팬데믹으로 선언함. <https://www.who.int/influenza/gip-anniversary/en/>에서 2020. 3. 25. 인출.

서로를 지키는 거리

★ 15일간(3.22.~4.5.)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3. 25. 기준

2020. 3. 25. 기준 2/10

함께 일하는 동료들 배려해 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같이
쓰는 공간



나부터
개인 위생을
지켜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